



# “세상에 이런 일이!”,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지니

‘현실과의 맥, 재미까지 찾아  
우리말로 옮기는 데 3년’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상이다. 그런데 웬걸, 돈 되는 장사는 비현실적이고 낯선 콘텐츠들뿐이다. 잘 나가던 한국 영화들도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가 밀려온다 치면 미리 후퇴 방도를 구한다. 꼭 같진 않지만 요즘말로 판타지라 옮겨 부를 만한 가상의 기이한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 어제, 오늘날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 조선시대에도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기이한, 낯선, 혹은 말도 안 돼 보이는 사연들을 곱씹었다. 그 증거물 <천예록>을 보면 비밀상非秘密을 상상하고 꿈꾸는 것이 매우 오랜 역사이며, 인간의 자연스런 욕망임을 새삼 감지하게 된다. 조선시대 민간에 떠도는 기이한 이야기 62편을 채록해 엮은 《교감역주 천예록》을 옮기고 이 중 28개를 뽑아 다시 적은 《조선의 귀신과 신선이야기》의 역자 정환국 씨(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는 “시대와 환경은 달라도 인간 내면에 흐르는 의식의 저류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비슷하다”고 비슷한 뜻을 내비쳤다.

하늘가의 기이한 이야기, ‘재미는 있지만 이본이 많아 고생 좀 했죠’

‘하늘의 가장자리’, 즉 인간계와 선계 사이라고 불리는 천계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을 기록한 <천예록>을 옮긴 정씨는 “우선 귀신을 비롯해 지금 시각으로 봐도 일상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전 개되니 재밌더라”고 말했다. 그가 이 텍스트를 처음 발견한 것은 1990년대 초,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을 시기였다. <천예록>은 이야기 특성상 18세기 중반에 등장하는 야담류로 분류되는 텍스트인데 야담보다 이른 시기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아함을 던져줬다. 그러다 그냥 물어뒀던 것을 꼼꼼히 훑아보게 된 것은 소설사를 전공으로 택하고 중국소설과 우리소설을 비교 연구하던 시기였다. 특히 중국의 <요재지이> <우초신지> 등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야기만의 개성과 맛이 느껴졌다.

“번역부터 하는 게 필수였죠. 그런데 쉽게 끝낼 일은 아니더군요. 중국은 명대 때 여기저기 떠돌던 얘기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판본으로 정리하는 시기를 거쳤지만 우리는 출판 제작 환경도 매우 열악했고 유교사회에서 소설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바람에 소설 분야는 공개적인 출판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본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죠.”

일본 천리대소장본, 김영복 소장본 등을 자료로 이본 교감을 마친 후 번역작업에 착수했다. 대중화 콘셉트로 출간한 《조선의 신선과 귀신 이야기》는 제목에서부터 귀신과 신선이라며 주인공을 한정했지만 사실 <천예록>을 통해 그가 만난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마디로 규정짓기 힘든 존재들이었다.

여행자 앞에 우연히 나타나 언젠가 은덕받은 바에 보답하는 신선도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도 출연했다. 둔갑술을 발휘하는 요괴도 있으며 멀쩡하던 인간이 불현듯 이물로 변신하기도 했다. 후반부에 기인보다도 독특한 여성 캐릭터들까지 등장해 읽는 이의 손을 땀 수 없게 만들었다. 정씨 표현에 따르면 '비일상적 존재들의 경연장'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특히 자신을 업신여긴 이를 발가벗겨 창피를 주고, 남편의 불기를 때리거나 수염을 자르는 아내 캐릭터는 여권이 신장된 지금 시대 눈으로 봐도 입이 벌어진다. 지금 봐도 경악할 사연들인데 유교 가치관이 짙었던 당대에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물었더니 정씨는 "비일상적인 건 분명하지만 실제로 일상과 비일상은 기묘한 끈으로 연결돼 있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비일상적인 것이라 해도 그 근간은 현실에 있겠죠. 특히 후반부에 나오는 여성들 이야기를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녀들이 지배층을 골탕 먹이는 심리는 당대 생활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또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인異人들이 등장하거나 전우치처럼 부정적인 캐릭터가 나와 갈등을 만드는 것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 전란을 겪은 것과도 관련이 있겠지요."

정씨는 난세 속에서 남다른 재주로 신통력을 발휘하는 신선과 이인 등의 등장을 '피세의식'과 연관짓는다. 양관兩關을 겪으며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목도하게 됐고,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실제로 보게 된 이들의 마음 속에 신선을 향한 욕망이 숨겨져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다. 특히 정씨는 채록자인 임방이 이같은 이야기를 완벽한 이야기 구조로 형상화했다는 데서 그 특이점을 발견한다.

"그 당시 작품답지 않게 문학적입니다. 단순히 귀신한테 흘렸다는 걸로 결말짓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홀리게 된 과정은 어떤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탄탄한 구조로 보여주고 있지요. 정제된 육하원칙으로 돼 있다는 점에서 문학성이 뛰어난 글이라고 판단됩니다."

누가 봐도 괴이한 판타지 코드인 것은 분명하고, 독특한 캐릭터들이 줄이어 등장하는데 현실과의 맥, 그리고 재미까지 찾을 수 있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우리말로 옮기기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됐다. 실제로 고전 학계에서 야담류는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다. 소개 및 유형화 작업까지는 돼있다 해도, 다음 단계인 내적 분석면에서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씨는 이본이 많은 우리 실정에서 교감역주 작업을 비롯, 이렇듯 연구 진척이

되지 않은 현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소개돼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작업에 더 몰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본 교감역주는 중국의 대표 요괴 텍스트 <요재지이>와 객관적 비교**

"사실 고전번역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관계 기관에서 번역 지원을 해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일정이 워낙에 빠듯하니 능력이 있더라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들이 인문학에 등을 돌렸다 해서 대중화 작업을 하는 일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에게 기초적인 환경을 심어주는 일이 우선이겠죠."

정씨는 이번 작업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화 번역을 시도해 봤다. 한 권은 임방의 <천예록>을 오롯이 옮긴 책이요, 또 하나는 이 중 28편을 골라 중·고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다시 풀어쓴 책이다. '대중화'라며 고전을 제멋대로 짜깁기하거나 역사 마음대로 침삭을 해버리는데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하는 정씨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 대중들이 과거와 호흡하는 데 느끼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론 <요재지이>와 <천예록>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귀신과 요괴에 관한 최고의 텍스트라 불리는 중국의 <요재지이>는 아예 현실을 떠난 얘기가 대다수고 매우 짧은 초단편입니다. 공모롭게도 임방과 포송력은 출생년도가 같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책을 쓰게 된 건 아니라는 소란데, 그런 점에서 두 텍스트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봐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정씨는 "시대, 환경, 시간이 지나도 특별히 변하지 않고 다르지 않은 게 사람 아니냐"고 말했다. 우리 과거를 무조건 부족하다고 평가하지만 시대, 환경, 조건이 달라져도 인간이 생각하고 꿈꾸는 바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그런 뜻으로 정씨는 <천예록>은 단순히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먼 과거에서 면면이 이어져온 인간의 내면에 관한 기록이고,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조선의 신선과 귀신 이야기》는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큰 관심을 얻었고 현재 한 스페인출판사에서 번역출간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민**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